

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잠언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7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잠언 · 로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해 가신 예수님의 좁은 길은
천국으로 열려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믿음으로 좁은 길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2009년 7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세상 사람들도 참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이나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또는 참 스승을 통해서 참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참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7절).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미련한 자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의 지혜로 말씀하실 때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이 평가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20). 이처럼 미련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삶이 실존적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악인의 길은 구부러진 길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겨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14~15절). 길이 구부러졌다는 말은 행위가 바르지 못하여 악으로 치우침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고 패역하여 악한 길 즉, 구부러진 길로 행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자기 마음에 좋은 데로 접어가는 길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 접어가는 길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주님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 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듯,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잠 2:8)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먼저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5~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마 10:29~30).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히 10:14). 이 죄 사함 뿐 아니라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좇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배의 삶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모든 일꾼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들은 사람을 움직이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불평하게도 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사고의 중심지이며, 사람의 생을 주관하는 곳으로 의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23절)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말하지만, 그 타락된 본성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잡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모시어 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 그의 인도하심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이럴 때 우리는 죄악 된 세상 가운데서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 속에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정결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만을 좇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주일을 준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 길에 따라 보옵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라”(22절).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습성에 따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멸망을 초초하게 됩니다. “그가 웅덩이와 파 만듬이여 내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시 7:15).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사탄의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자기의 악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혼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23절).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미하게 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혼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혼계의 삶이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잠 5:21)

기도 제목 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찬식과 맥추감사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밋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16~1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죄악 가운데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는데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거짓된 혀’는 남을 속이는 삶으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모든 악의 근본이 마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악한 행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는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서로 화목해야 할 이웃을 분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든 악함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3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들이심에도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잠 6:17)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음행의 사실을 들어 음행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음행에서 벗어날 때 주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5절).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1~3절). 간직하라 는 것은 귀중한 보화를 도난당하지 않게 금고에 숨겨두듯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젊은이들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과 죽은 지 삼 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관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마음 판에 새기며 순종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잠 7:1)

기도 제목 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10절). 금과 은보다는 지혜의 훈계와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며 가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잠 3:14). 이처럼 지혜의 훈계와 지식은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인 영양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금은보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의 의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며, 세상 모든 것보다 이것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세계 선교에 지원하고 동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잠 8:12)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마 16:18)로 세우는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혜가 집에 잔칫상을 차려 놓고 여중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여중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3절). 이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 잔치로 초청한 것과 같습니다. 범죄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의 복음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천상의 회의를 거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수로보니게 여인, 광야의 걸인 같은 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철저히 회개했던 이런 죄인들이 바로 지혜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4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이 구원의 길임을 외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히 기도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총에서 벗어나면 인간의 가치관과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의인으로서 삶의 수고가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16절). 악인의 수고는 죄에 이른다고 의인의 수고와 대조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는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수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삼상 15:22).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습니다. 또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길에서 믿음의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수고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인이 되는 수고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잠 10:16)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 일꾼을 양성(딤후 4:6)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미련한 자는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은에서 건지느니라”(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이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재물로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는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눅 12:19~20).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는 소유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불의한 재물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옴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헛된 세상의 재물을 쌓기보다는 께어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살전 5:6).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벧후 3:11~12). 또한 세상과 벗 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약 4:4).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잠 11:28)

기도 제목 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정의 머릿돌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여 맡겨준 양무리들을 돌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언어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진 말씀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무절제한 말은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혜로운 말은 낙심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18절).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6절).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언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 12:19)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② 매주일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거듭나서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의인과 악인에 관한 대조적인 묘시가 말씀의 중요함에 있으며,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1절).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권면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숙된 인격체로 자라 갑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는 그러한 권면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13절).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기 좋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 체험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오직 “예”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잠 13: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악한 자와 정직한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등을 대조시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무엇 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26~27절에서 발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26~27절). 구체적으로 열거된 이 모든 사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어리석기 때문에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8절).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성급하여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16절). 잠언에서는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22:9),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변호해 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1:9).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갈 2:20).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잠 14:2)

기도 제목 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게 하소서. ②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언어 기능의 적극적인 면, 즉 말을 통해 베풀 수 있는 큰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일상 중에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한마디 말로 큰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실족 시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7절). 그러나 이러한 말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말과 함께 마음의 상태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13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그 마음이 정직하고 신실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3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10~11절).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 매우 열악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주님께서서는 기뻐하십니다(16~17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16)

기도 제목 ①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② 2009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일꾼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4절). 이 말씀은 여호와와 주권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세상에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아함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하게 활용하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을 다스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십리 속에서 시한부로 악인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모든 죄악을 속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6절). 인자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자와 진리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잠 16:6)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상 2:9)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22절).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기쁨이 깨졌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범죄한 다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 불안,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런가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죄로 인해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의 회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천국은 기쁨의 절정입니다.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잔치집을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

기도 제목 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충만한 십자가의 정병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12절). 교만이 왜 멸망받을 죄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베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신 8:12~14).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지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교만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잠 18:12)

기도 제목 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복음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예비 된 영혼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21절).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는 내 계획은 포기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고 끝나면 동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한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곳이 전: 기지가 되어 유럽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지혜로운 자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에 자기 부인 가운데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죽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잠 19:23)

기도 제목 ① 영으로 심어 생명과 평안을 거두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주일 1~5부예배와 찬양예배 및 교회학교의 모든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역사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이생의 자량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죄 사함에 두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정결함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제물을 통해서 온전히 죄 사함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 멸시와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 받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전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잠 20:9)

기도 제목 (1)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소서. (2)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재목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구제의 손을 펴지 않고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고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머니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로서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구제하는 자는 하늘에서의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약 2:13)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 25:42~43)고 책망하시고, 이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공홀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잠 21:2)

기도 제목 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에 중·고·대·청년부의 젊은 선교사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헌신하는 선교의 불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노를 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가 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사랑의 마음을 거스리며 분쟁과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상응하는 벌과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욥 5:2, 잠 19:19).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비움과 분을 품는 것을 살인죄로 정죄하시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마 5:21~22).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므로 마음속의 생각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24절).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영혼을 울무에 빠뜨리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에 악한 자들과 가까이하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8~29).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할 때 분노는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22: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배와 집회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23절).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물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 18:3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요 18:38)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를 살 수 있습니까? 진리를 사는 것은 돈으로,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마 13:45~46)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려고 하면 먼저 내게 있던 것은 다 팔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참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팔아야 합니다. 즉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 마음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가득했던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 되었고 이 세상에 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잠 23:17)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만 알고 있어서 자기 민족의 구원에는 무관심했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1~5절은 그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염원했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행위에 의한 자기 의에 빠져서 그것만을 고집하다가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며 바울은 매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1~2절). 또한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3절).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허탄한 것들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도 역시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변 전도와 국내 전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아직까지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롬 9: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1절). 그러나 그들은 영적 무지로 인해서 참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시킴으로써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릇된 구원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5~13절).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한 구원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16~21절). 이러한 그들의 거절은 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을 확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절).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3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행위나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4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

기도 제목 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25개 교구 및 23개 교회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은 과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목적을 사실상 좌절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선민의 구원이 여전히 확실한 약속으로 남아 있는가' 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비록 이스라엘이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완악함을 보였지만 (7~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를 통해 구원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1~6절). 그 남은 자란 그 스스로가 선택한 신앙 양심을 끝까지 견지한 자가 아니라 그 역시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어 중반부(11~2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행위나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이어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엡 2:8~9)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자만하거나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25~36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25~26절)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뒤이어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으로 전 구속사를 주권적으로 경륜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허물의 집합체인 '나'를 향하여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눈길과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롬 11:30)

기도 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12~16장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실천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실천적 생활에 대한 도입부에 해당되는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1~2절),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3~8절),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9~21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통해서 '행함 없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약 2:14~26). 또한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해 골고루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윤리와 교훈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윤리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선한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자신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기도 제목 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비릇된 권세를 거역하는 태도이므로 결단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7절은 국가 권세의 기원(起源)은 하나님이며, 위정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6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복종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킬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0절은 앞선 교훈을 이웃에게까지 더욱 확장시킨 것으로서, 십계명 중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다섯 계명인 제6~10계명의 준수가 결국 근본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14절은 임박한 종말에 즈음하여 성도들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의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전력하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시길, 생각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마 24:44). 우리는 깨어서 이 때를 기다리며 급게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맙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와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당시 로마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한편으로는 상호용납함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2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의심하는 바나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 하여 함부로 형제를 판단함으로 넘어지게 해서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3~23절에서는 전반부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경우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절제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자기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롬 14:1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 은총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상호용납을 통한 화해의 권면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여호와의 찬양하며 동일한 구속의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함으로써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1~13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 배려할 것을 명합니다. 이로써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차이가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여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 구속 목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33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아 사역한 것이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14~21절). 이어 선교 여행 중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22~33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의 냉담한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알려진 이방 세계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역 대상지로 삼음으로써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수한 맘과 눈물로 십자가 복음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롬 15:7)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가는 선교사'들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도록 '보내는 선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16절). 바울의 문안 인사와 마지막 부탁으로, 먼저 자신을 대신하여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할 뵈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1~2절). 이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각각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3~16절). 그 후 바울은 교회를 분열 시키려는 분파주의자들을 경계하도록 당부하며(17~20절),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를 소개하며 송영과 축도로서 끝맺고 있습니다(25~27절).

그런데 우리는 26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에서 바울의 뛰어난 복음 전도사역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 없이 그저 혼자서 주님의 지상 명령(마 28:18~20 : 행 1:8)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로마 교회는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내실 있는 교회였습니다(롬 1:8).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와 부탁의 말을 전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선생과 주로서 제자와 종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요 13:4~17)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롬 16:3)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함과 열린 마음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피택자들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

7월 구역교재 초점

참 신자의 길
좁은 길

참 신자의 길, 좁은 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 성취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지하고 우매하게 보이는 좁은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은총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길이며 진정한 미래가 있는 소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과 진정 다른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걷기 원합니다.

금요모임	본문	제목	초점
0703	고린도전서 11:26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참 신자가 되라
0710	마태복음 16:21~28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신자가 되라
0717	민수기 32:23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가 되라
0724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진정 다른 것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후 놀랍게 변화되는 신자가 되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그가 오실 때까지

| 초 점 |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참 신자가 되라

| 찬 송 |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 문 | 고린도전서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특별한 예배의 시간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실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주의 만찬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 성찬식을 참여할 때 받은 은혜를 고백해 보십시오.

신자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의 속량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 빈 칸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완성한 뒤에 암기하십시오.

[보기] 믿음 / 복음 / 시련 / 죽으심 / 두려움 / 승리 / 극복

주의 만찬은

- ① 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
- ② 주의 이 역사적 사실임을 선포하는 것
- ③ 우리의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
- ④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 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선포입니다.

골 2:15 _____

주의 성만찬은 무의미한 교회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할 영광스러운 은총의 예식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요 1:14 / _____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_____

※ 주의 만찬에 대한 신자의 특별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삼 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행 1:11 /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_____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요 6:54 _____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한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자들이 갖는 특별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심판의 날에 있을 광경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마 25:31~33,46).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만인과 만물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골 2:31~32 ; 계 21:22~24).

※ 베드로후서 3:7~8,13~14 ; 로마서 8:1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심령에 새기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엡 5:14

고전 11:26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또한 감사함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속량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들은 안전하며 영원한 천국의 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만을 선포하는 참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소서
2. 주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2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 초 점 |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신자가 되라

| 찬 송 |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 본 문 | 마태복음 16:21~28

²¹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 ²⁷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²⁸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리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쉬고,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은 중요한 영적 주제에 대해 자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 마태복음 16장 전체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실상을 고백해 보십시오. 좁은 길의 믿음인가? 넓은 길의 믿음인가?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전혀 관계없는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 위임육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스도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마 16:21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마 16:16). 그러나 그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 예수님을 향한 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하는 좁은 길로만 가셨습니다.

마 7:13~14

※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한다

좁은 길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마 16:22 _____

예수님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는 좀더 쉬운 다른 어떤 길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마 16:23 / 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을 생각하는 도다

※ 좁은 길을 걸을 때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어떠합니까?

종교심, 돈, 선행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고 있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디모데후서 4:3~4 ; 요한계시록 1:5 말씀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신자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좁은 길로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마 16:24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즐겁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눅 13:24 / ☐☐ ☐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 좁은 길을 걷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은 포기과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마 26:39

빌 2:8

신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해 열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전까지 내가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_____
 이제부터 내가 걸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_____

행 20:24 _____

딤후 4:7 _____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모든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5~27).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2.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과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 초 점 |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가 되라

| 찬 송 |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 본 문 | 민수기 32:23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
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 민수기 32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했던 실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실수들도 있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는 없습니다.

전 5:6 _____

약 3:2 _____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창 3:8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창 1:26,31). 그러나 슬프게도 최초의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으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며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 죄의 결과와 관계있는 성구를 연결해 보십시오.

육신적 · 감정적 징계 ·	· 시 66:18
근심 · 불안 ·	· 시 32:3~4
기도의 응답을 막음 ·	· 시 51:12

죄는 심각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을 희생할지라도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요일 1:7~9

죄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창 4:8 _____

※ 죄 때문에 가정이 어떻게 깨졌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아담의 가정(창 4:1~10) _____

- 다윗의 가정(삼하 11:1~12:25) _____

죄는 우리의 영혼을 깨뜨릴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도 무너뜨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롬 14:7~8 _____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 고린도전서 11:29~32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갈 6:7~8 _____

죄는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준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롬 6:23 / 죄의 은 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히 9:27 _____

계 3:11 _____

죄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어렵게 하지만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롬 5:1 _____

요 10:10 _____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고전 15:57~58).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주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 안으로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영원한 삶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매번 죄와의 싸움에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죄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골 2:15

고전 1:18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참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과 진정 다른 것

| 초 점 |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후 놀랍게 변화되는 신자가 되라

| 찬 송 |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본 문 | 데살로니가전서 4:13~18

⁽¹³⁾ 형제들아 지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¹⁷⁾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¹⁸⁾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은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를 힘들게 한 어려운 문제이며, 이것은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 과 '죽음' 이 어떻게 다른지 나누어 보십시오.
 삶 _____

죽음 _____

※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비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소망이 있는가?

진정 다른 것은 소망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실전 413 /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요 11:33~35 _____

※ 신자들이 죽음 앞에 슬퍼할지라도 불신자들의 슬픔과 진정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고후 5:6~8 _____

믿음이 있는가?

진정 다른 것은 믿음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살전 4:14~15 / 우리가 _____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_____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롬 10:10 _____

※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누구를 향한 믿음이며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며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소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진정 다른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있습니다.

살전 4:16~17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모든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 고린도전서 15:42, 48~49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첫째 부활 때에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요일 3:2). 그러나 둘째 부활로 인하여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게 될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20:6~15 말씀의 중심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은 은총이지만 불신자들의 부활은 저주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눅 16:19~31)에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하니까?

벧전 1:5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놀랍게 변화되는 신자가 되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소서.
2.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2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실수들도 있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실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실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도 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원수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최초의 인류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으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육신적, 감정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시 32:3~4). 죄는 근심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윗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시 51:12). 죄 아래에서의 삶은 심지어 기도의 응답을 막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죄는 심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고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9).

죄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준다

죄는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죄의 결과들은 아담의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 4:8). 인류의 첫 가정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값으로 다윗의 만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삼하 12:14). 개인적으로 나는, 부모의 죄나 자녀들의 죄, 그리고 부부 간의 죄가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7~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죄는 우리의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야 함을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29~32). 죄를 지으면 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7~8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는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준다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줍니다. 로마서 6:23은 말씀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여러분의 구원받음은 잃어버릴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는 예배에 영향을 주며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줄어둘게 합니다. 기쁜 소식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신자들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우리에게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7~58).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자존심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제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 90%만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으로 나머지 10%만큼의 죄를 반드시 짓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100%의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를 짓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마다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9년 7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전화 052-8209) [비매출]